

# “경제민주화 동참” 광주 기업들 사회공헌 강화 무이자 할부 카드 출시 중단

### 광주은행, 사무국 운영 지역인재 양성 앞장

### 광주신세계, 장학·문화분야 지원에 年 12억

경제민주화 논란 속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역 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을 보강하는 등 관련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자신과 기부, 협력사와의 상생,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다양화 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금융권 최초로 사회공헌사무국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봉사활동과 장학금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인재 양성, 지역개최 국제행사 및 개발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은행으로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공생경영’ 실천을 위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영업접KPI(성과평가제도)’ 실적에 반영하고 전 직원 인사관에 활용하는 ‘인사포인트 제도’ 등을 신설해 반영 중이다.

또 일자리 창출에도 공헌한 광주은행은 지역인재를 90% 이상 지속적으로 채용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 해에도 특성화고생 채용, 취업현장실습과정 운영 등 지역 인재 양성을 강화 할 계획이다.

현지법인인 (주)광주신세계를 비롯해 지역에서 영업 중인 유통업체도 동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은행으로서 좋은 평판을 통해 장기 성장 등 경영약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다.

(주)광주신세계는 지난 1월 그룹 차원에서 백화점 본부와 이마트 본부에 상무관이 총괄하는 CSR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사적으로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나서자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역상품의 판로확대, 사회공헌활동, 장학사업, 문화·예술·체육 지원사업, 친환경 경영 등 ‘지역친화 5대 사업’으로 매년 평균 12억원 가량의 사회공헌활동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순한 기부나 지원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케팅 기법 등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영 멘토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에서 영업중인 이마트도 지난 한 해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비용으로 약 1억8000여 만원을 썼다.

희망버꾸니, 희망 하우스 등 매일 봉사활동 테마를 선정해 신학기 학용품 전달, 주거환경 개보수 지원, 주부 봉사단 활동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역친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외계층 돕기, KIA타이거즈 후원,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하는 녹색 마케팅, 사랑의 집 고쳐주기 ‘러브하우스’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광주·전남 기업 최초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출산장려기금 조성, 출산장려 홍보캠페인 등 5대 출산 장려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최재호·이은미기자 lion@kwangju.co.kr

### 금융당국 과당경쟁 규제

무이자할부를 탑재한 신규 신용카드의 출시가 일제히 중단된다.

금융 당국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에 맞춰 무이자할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혜택이 부여된 새로운 카드를 내놓지 않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카드사 특별검사에서 무이자 할부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서 무이자 할부를 탑재한 신규 카드 발매를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카드에 무이자 할부 기능이 포함되면 카드사 사업비가 늘어 이 혜택을 못 받는 고객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비용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면도 고려됐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의 비협조 때문에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를 쓰는 17일부터 차례로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고객 배려 차원에서 1개월 정도 유예한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를 계속 하면 경영 압박이 커지고 대형 가맹점 부담을 규정된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기존에 출시된 무이자 할부 탑재 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무이자 할부를 자주하려면 자신이 보유한 카드의 부가 혜택을 확인해보고 ‘카드 갈아타기’도 고려해볼 만하다.

국민카드의 ‘와이즈카드’나 삼성카드의 ‘삼성카드4’, 신한카드의 ‘심플카드’, 현대카드의 ‘제로 카드’, 비씨카드의 ‘그린 카드’, ‘우리V 티아라 카드’, ‘IBK 스타일 플러스 카드’ 등이 해당 상품이다.

‘제로 카드’와 ‘삼성카드 4’는 새해 들어 상시 행사용 무이자할부 잠시 중단된 사이 반사 이익으로 지난 1월 발급량이 지난해 12월보다 10% 이상 늘어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삼성카드 4’는 전월 이용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0.7%를 할인해주는 부가혜택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제로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 12월 시중 통화량 1년 만에 반등

### 전년보다 4.5% ↑

지난해 12월 시중통화량(M2) 증가율이 하락세를 멈췄다.

한국은행은 13일 “2012년 12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자료를 내고 M2가 1835조6000억원(원계열·평균잔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과 견줘 4.5% 늘어난 것이다. M2 증가율은 지난해 7월(6.0%)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8월부터 11월까지 4달 연속 떨어져 11월 4.4%까지 내려왔다. 계절성을 고려한 계절조정계열로 보면 12월 M2 증가율은 전월 대비 0.1% 늘었다.

M2에는 현금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인 협의통화(M1)와 함께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금융채, 머니

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상품이 포함된다.

한은은 “기업과 여신회사 등을 중심으로 만기 2년 미만의 금전신인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중 M2 증가율은 정부연초 재정지출 확대에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출돼 4%대 중반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통화인 M1은 12월 457조8000억원(원계열·평균)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M1은 현금, 요구불 예금 등 현금성 자금이다. M2에 2년 이상의 장기상품을 더한 금융기관유동성(Lf·평균)은 2천45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늘었다. Lf에 국제, 지방채, 회사채 등을 더한 광의유동성(L·월말잔액)은 3천120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 확대됐다. /연합뉴스



## “새해에도 지역사회 사랑 잇겠습니다”

### 市-하이트진로 광주사랑기금 3억원 조성 협약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 김인규)는 13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강은태 광주광역시시장, 김상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정재덕 하이트진로(주) 전남본부장, 성동욱 하이트진로(주)광주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사랑기금 3억원 조성 협약식’을 가졌다.

하이트진로(주)광주지점은 참이슬 ‘情 나눔 지역사회 캠페인’ 일환으로 2013년 1월부터 광주지역에서 판매되는 d맥주와 참이슬 1

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3억원 달성 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조성한 2억원의 광주사랑기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지역 결식아동·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성금으로 사용했다. /최재호기자 lion@

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3억원 달성 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조성한 2억원의 광주사랑기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지역 결식아동·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성금으로 사용했다. /최재호기자 lion@

## 정종록 광주상인연합회장 신보 일일 명예지점장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형진)은 13일 정종록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장을 복지점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정종록 회장은 고객과의 보증상담과 보증서 발급절차를 체험하고 재단을 방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한편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올 보증공급 목표인 2330억원 중 약 900억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소기업 전용



## 취득세 감면 연장에 주택시장 봄바람

### 경기실사지수 소폭 상승

최근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주택업계의 사업환경이 다소 밝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업체를 상대로 1~2월 사업 현황과 전망 등을 조사해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도출한 결과 2월 전망치가 1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2월 전망치는 서울 36.2, 수도권

34, 지방 57.4로 1월보다 각각 4.2포인트, 2포인트, 11포인트 올라갔다.

반면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가 불확실했던 1월 실적치는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전망치보다 8.6포인트와 4.3포인트 하락했다. 미분양지수는 1월 실적치(104.3)가 전망에 비해 24.3포인트 올라 상황이 악화됐지만 2월 전망은 다시 83으로 내려가 주택업계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연합뉴스

## 자영업자도 ‘프리워크아웃’

### 빚 상환 연장·이자 인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 대출이 경기민감 업종에 집중돼 있고 채무상환 능력이 임금근로자보다 떨어질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253조원으로 전체 대출 1천106조 3000억원의 22.8%다. 비은행권 대출은 101조원이다.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17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1000억원,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79조1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기업대출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23.3%, 비제조업 비중은 76.7%이다. 비제조업은 부동산·임대업(28.5%), 도·소매업(19.3%), 숙박·음식업(10.6%) 등 경기민감업종의 비중이 크다.

지난해 비제조업 대출은 13조3000억원 늘어났지만 제조업 대출은 1조

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이 각각 7조 5000억원, 1조9000억원, 1조8000억원 늘어나며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담보대출이 102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대출 48조원, 보증대출 22조9000억원이었다.

담보는 상가·오피스텔 등 기타 부동산담보대출이 80.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로는 자영업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4.1%로 2011년 29.1%보다 개선됐다.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각각 91.1%, 156.7%로 전체 평균인 75.1%와 124.3%를 웃돌았다.

금융원은 경기민감·공급과잉 업종이나 대출비중이 높은 업종에 과도한 출립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밀업종에 대출할 때는 경영성과평가(KPI)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영업점의 KPI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축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축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축석 프리미엄뷔페!!**

**주류서비스**  
-성인1인용, 평일평문 고객-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택1

**가격안내**  
(이동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Canon**

**EOS 60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출판) 문의전화 062)383-3000